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국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구조 변화 및 시사점
- 좋은 일자리 증가 속, 근로약자(여성·청년·고령층)의 상대적 소외

목 차

■ 국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구조 변화 및 시사점

- 좋은 일자리 증가 속, 근로약자(여성·청년·고령층)의 상대적 소외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국내 일자리의 질적 평가 분석 결과	4
3. 시사점	10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경제연구실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연 구 자 : 신성장연구실 전 해 영 선임연구원 (2072-6241, hjeon@hri.co.kr)

Executive Summary

□ 국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구조 변화 및 시사점

■ 개 요

‘좋은 일자리’란 대체적으로 충분한 임금, 생산적인 업무, 적절한 근로시간과 고용 보장, 안전한 근무환경 등이 제공되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사회 내에서 일자리는 양(Quantity)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질(Quality)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의 취업난 장기화, 고령 근로자의 저소득화·고용불안정성 심화 등 일자리의 질 개선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부 제기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임금근로자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좋은 일자리’ 구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 국내 일자리의 질적 평가 분석 결과

먼저 본고에서의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정규직과 비정규직)과 소득(적정수준 미만, 적정수준 이상)에 따라 좋은 일자리(적정소득 이상, 정규직), 괜찮은 일자리(적정소득 이상, 비정규직), 힘든 일자리(적정소득 미만, 정규직), 안좋은 일자리(적정소득 미만, 비정규직) 등으로 구분하였다.

< 일자리의 분류 >

		소득(Income)	
		Low(적정소득 미만) <small>(중위소득의 125% 미만)</small>	High(적정소득 이상) <small>(중위소득의 125% 이상)</small>
고용 안정성 (Security)	High (정규직)	③ 힘든(Hard) 일자리 Low Income High Security	① 좋은(Good) 일자리 High Income High Security
	Low (비정규직)	④ 안좋은(Bad) 일자리 Low Income Low Security	② 괜찮은(Reasonable) 일자리 High Income Low Security

(유형별 일자리) 4가지 유형 중 좋은 일자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2006년 414만개에서 2015년 674만개로 260만개 증가하여 그 비중도 27.0%에서 34.9%로 증가하였다. 반면 힘든 일자리는 2006년 37.5%에서 2015년 32.6%로, 안좋은 일자리는 29.8%에서 27.5%로 감소하여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및 근로안정성) 좋은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근로소득 및 근로안정성이 모두 개선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근로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125% 이상의 적정소득 이상 일자리의 비중은 2006년 32.7%에서 2015년 39.9%로 증가하였다. 또한 동기간 정규직 일자리 비중은 64.5%에서 67.5%로 증가하였다.

(근로시간 측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과다근로 일자리는 감소하고 과소시간 일자리는 증가하였다. 주 50시간 이상의 과다근로 일자리 비중은 2006년 33.7%에서

2015년 20.2%로 13.5%p 감소하였으며, 36시간 이상 50시간 미만의 적정시간 근로 일자리는 43.9%에서 45.9%로, 36시간 미만의 과소근로 일자리는 22.4%에서 33.9%로 증가하였다. 모든 유형별(좋은-괜찮은-힘든-안좋은) 일자리에서 과다근로 비중은 줄고 과소근로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가운데, 좋은 일자리에서는 적정시간근로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안좋은 일자리에서는 적정시간근로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성별)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 간 격차가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적정소득 이상,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적정소득 이하, 비정규직의 안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다만 남성-여성 근로자간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비중 격차는 2006년 18.0%p에서 2015년 20.5%p로 확대되었으며, 안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 격차도 동기간 -3.4%p에서 -5.0%p로 확대되었다.

(연령별) 연령별로 좋은 일자리 및 안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30세 미만 청년층 근로자의 경우, 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비중은 2006년 3.0%에서 2015년 3.3%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안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비중은 7.6%에서 6.3%로 감소했다. 30세 이상 55세 미만 중년층 근로자의 경우 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안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의 경우 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비중과 안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비중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 일자리 비중 변화 추이 >

(단위: %, %p, 만개)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증감	
비중	좋은	27.0	28.5	32.4	33.4	34.6	29.7	30.0	32.3	31.7	34.9	7.9
	괜찮은	5.7	6.6	6.1	5.2	5.5	4.6	4.8	4.7	4.6	5.0	-0.7
	힘든	37.5	35.6	33.8	31.7	32.0	36.1	36.7	35.1	35.9	32.6	-4.9
	안좋은	29.8	29.3	27.7	29.7	27.8	29.6	28.5	27.9	27.7	27.5	-2.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시사점

좋은 일자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근로여건 및 고용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근로약자(여성, 청년, 고령 근로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일자리 확충 및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안정성이 낮은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취업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낭비적 근로 문화 개선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일할 기회 보장을 통한 소득안정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개선 혜택의 수혜 정도가 낮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청년층 및 고령층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1. 개요

-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적정수준의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개념) '좋은 일자리'는 대체적으로 충분한 임금, 생산적인 업무, 적절한 근로시간과 고용 보장, 안전한 근무환경 등이 제공되는 일자리
 - 최초 용어 사용 : 1990년대 초반 국제노동기구(ILO)가 '전체 산업 월평균 명목임금 수준을 웃도는 산업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라는 의미로 'Decent Job, Decent Work'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
 - 대중적인 의미 : 적정한 임금과 근로시간, 평균 정도의 업무 강도의 일자리로 일컬어짐
 - (연구 배경) 사회전반적으로 일자리의 양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 즉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¹⁾
 - 한 경제 내에서 일자리는 양(Quantity)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질(Quality)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한편 청년층의 취업난 장기화, 고령 근로자의 저소득화·고용불안정성 심화 등 일자리의 질 개선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
 - 15~29세 청년 실업률과 전체 실업률 간 격차는 2015년 10년 4.2%p에서 2016년 5월 5.8%p로 확대
 -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31.3%로 34개 OECD 중 2번째로 높은 가운데, 일자리의 대부분이 임시직으로 구성
 -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및 5060세대의 비정규직 취업 쏠림 현상이 지속
 -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일자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강화되었으나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일부 평가가 존재
 -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좋은 일자리' 구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기

1) 자세한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최근 10년간 일자리 구조 변화의 특징'(통권 522호, 2013.4.2) 참조.

○ (연구의 프레임워크)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질적 구조 변화를 분석

-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음
 - 다만, 노동시장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을 참고지표로 활용
- (연구개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6~2015년 10년간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질적 구조 변화를 분석
 - 본 분석은 통계청이 2003년부터 매년 8월에 실시하는 취업자의 근로형태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
- (평가기준) 일자리의 질적 구조는 기본적으로 고용안정성과 소득으로 평가하며 근로시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추가 분석을 실시
 - 고용안정성: 근로자의 고용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로 평가
 - 소득: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의 125% 미만은 적정수준 미만(Low Income), 중위소득의 125% 이상은 적정수준 이상(High Income)으로 분류
 - 추가 분석:
 - ① 근로시간: '과다근로(50시간 이상)', '적정근로(36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과소근로(36시간 미만)로 분류
 - ② 인구통계학적 분석: 근로자의 성별 및 연령(30세 미만 청년층, 30세 이상 55세 미만 중년층, 55세 이상 고령층)에 따른 일자리 분포 분석 추가 실시
- 소득 수준과 고용안정성 여부에 따라 일자리를 4가지로 구분

< 일자리의 분류 >

		소득(Income)	
		Low(적정소득 미만) <small>(중위소득의 125% 미만)</small>	High(적정소득 이상) <small>(중위소득의 125% 이상)</small>
고용 안정성 (Security)	High (정규직)	③ 힘든(Hard) 일자리 Low Income High Security	① 좋은(Good) 일자리 High Income High Security
	Low (비정규직)	④ 안좋은(Bad) 일자리 Low Income Low Security	② 괜찮은(Reasonable) 일자리 High Income Low Security

2) 36시간 미만을 과소근로, 50시간 이상을 과다근로로 구분한 노동연구원의 기준에 근거.

【참고1】 '좋은 일자리'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 (EU) EU는 '임금'과 '직무특성'을 기준으로 일자리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
 - (분류기준 1) 임금 : 중위값의 75%를 기준으로 '적정임금'을 구분
 - (분류기준 2) 직무특성(고용안정성·직업훈련 및 진로전망) : '모두 제공', '한 가지만 제공',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의 세 가지로 구분
 - 일자리는 임금과 직무특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
 - ① 우량 일자리(job of good quality) : 적정 임금, 직무특성(고용안정성, 직업훈련 또는 진로전망) 모두 제공
 - ② 적당한 일자리(job of reasonable quality) : 적정 임금, 직무특성 중 한 가지 제공
 - ③ 저임금/저생산성 일자리(low-pay/productive job) : 적정임금 이하, 직무특성 중 한 가지 이상 제공
 - ④ 장래성이 없는 일자리(dead-end job) : 임금과는 상관없이 직무특성 제공 안됨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의 '일자리 평가 지표 연구(2007)'에서는 일자리의 질을 점수화하고 순서대로 상위 25%를 '좋은 일자리'로, 하위 25%를 '나쁜 일자리(하위 25%)'로 정의
 - '괜찮은 일자리'의 정의 : 고용안정성, 발전가능성, 보상 등이 적절하고 직업/직무 특성이나 근무조건, 일터에서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일자리
 - 지수 산출 방법 : 가중평균법(차원별 점수에 중요도를 곱해 각 일자리에 대해 0에서 100사이의 최종 점수를 산출)
 - 일자리 분류 : 전체 일자리의 점수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좋은 일자리(상위 25%)'와 '나쁜 일자리(하위 25%)'의 비중을 강제 배분

-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EU의 일자리 평가방식을 차용하되 평가 항목을 일부 조정
 - 직무특성 측면에서 EU 기준의 '고용안정성'은 정규·비정규직 여부로 대체하며, '근로전망'은 통계 부족으로 제외
 -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방식은 좋은 일자리 비중을 임의 배정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음

2. 국내 일자리의 질적 평가 분석 결과

(1) 국내 고용시장 현황 및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추이

-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가 지속 증가
 - 국내 15세 이상 인구는 2006년 3,884만명에서 2015년 4,309만명으로 연평균 1.2%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동기간 2,397만명에서 2,706만명으로 연평균 1.4% 증가해 경제활동참여율이 61.7%에서 62.8% 소폭 증가
- 취업자는 크게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³⁾로 구분 가능
- 취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국내 취업자는 2006년 2,316만명에서 2015년 2,614만명으로 12.9% 증가
 -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6.3%에서 73.9%로 7.6%p 증가 (1,535만명→1,931만명, 연평균 2.6% 증가)
 - 반면 자영업자의 비율은 33.7%에서 26.1%로 감소 (781만명→683만명, 연평균 1.5% 감소)

< 2006-2015 유형별 인구 규모 및 비중 추이 >

(단위: 만명, %, %p)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6-'15 차이
15세이상 인구	3,884	3,923	3,966	4,017	4,065	4,112	4,166	4,217	4,257	4,309	425
경제활동 인구	2,397	2,421	2,438	2,453	2,484	2,526	2,562	2,607	2,678	2,706	309
전체 취업자	2,316	2,346	2,362	2,362	2,401	2,450	2,486	2,529	2,589	2,614	298
임금 근로자	1,535 (66.3)	1,588 (67.7)	1,610 (68.2)	1,648 (69.8)	1,705 (71.0)	1,751 (71.5)	1,773 (71.3)	1,824 (72.1)	1,878 (72.5)	1,931 (73.9)	396 (7.6)
자영 업자	781 (33.7)	758 (32.3)	751 (31.8)	714 (30.2)	696 (29.0)	699 (28.5)	713 (28.7)	705 (27.9)	711 (27.5)	683 (26.1)	-98 (-7.6)
실업자	81	76	76	91	83	76	76	78	89	92	12

자료 : 통계청.

주 1) 자영업자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가족종사자.

2) 괄호안은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3) 고용주(임금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자영자(피고용인이 없는 고용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정기적인 보수 없이 상시종사자 작업시간의 1/3 이상을 작업한 사람)를 총칭. 국내 통계청은 '비임금근로자'라고 명명.

(2) 국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질' 분석결과

① (유형별 일자리) 4가지 유형 중 좋은 일자리의 비중이 증가

- (좋은 일자리) 2006년 27.0%에서 2015년 34.9%로 증가
 - 좋은 일자리는 2006년 414만개에서 2015년 674만개로 260만개 증가
 - 2007년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상승세
- (괜찮은 일자리) 2006년 5.7%에서 2015년 5.0%로 소폭 감소
 - 괜찮은 일자리는 2006년 88만개에서 2015년 96만개로 8만개 증가
- (힘든 일자리) 2006년 37.5%에서 2015년 32.6%로 감소
 - 힘든 일자리는 2006년 575만개에서 2015년 630만개로 55만개 증가
- (안좋은 일자리) 2006년 29.8%에서 2015년 27.5%로 감소
 - 안좋은 일자리는 2006년 458만개에서 2015년 531만개로 73만개 증가

< 유형별 일자리 비중 변화 추이 >

(단위: %, %p, 만개)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증감	
비중	좋은	27.0	28.5	32.4	33.4	34.6	29.7	30.0	32.3	31.7	34.9	7.9
	괜찮은	5.7	6.6	6.1	5.2	5.5	4.6	4.8	4.7	4.6	5.0	-0.7
	힘든	37.5	35.6	33.8	31.7	32.0	36.1	36.7	35.1	35.9	32.6	-4.9
	안좋은	29.8	29.3	27.7	29.7	27.8	29.6	28.5	27.9	27.7	27.5	-2.3
개수	좋은	414	452	521	550	590	519	532	589	596	674	260 (62.8)
	괜찮은	88	105	99	86	94	81	85	86	87	96	8 (9.3)
	힘든	575	565	544	522	546	632	650	641	674	630	55 (9.4)
	안좋은	458	465	446	489	474	519	506	508	521	531	73 (16.0)
	전체	1,535	1,588	1,610	1,648	1,705	1,751	1,773	1,824	1,878	1,931	396 (25.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1) 비중 및 개수 증감은 2006년 대비 2015년.

2) 괄호안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단순증가율.

② (소득 및 근로안정성) 좋은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근로소득 및 근로안정성이 모두 개선된 데 기인

- (근로소득) 중위소득 125% 이상의 적정소득 이상 일자리의 비중은 2006년 32.7%에서 2015년 39.9%로 7.2%p 증가
 - 한편 중위소득의 125% 미만인 적정소득 미만 일자리의 비중은 2006년 67.3%에서 2015년 60.1%로 감소
 - 규모 측면에서 적정소득 이상 일자리는 해당기간 502만개에서 770만개로, 적정소득 미만 일자리 수는 1,033만개에서 1,161만개로 증가
 - * 단, 지난 10년간 중위소득은 2006년 145만원에서 2012년 180만원까지 증가한 후 정체되어 있어 적정소득 이상 일자리가 증가한 배경을 해석 시 고려 필요
- (근로계약 측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정규직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은 감소
 - 정규직 일자리 비중은 64.5%에서 67.5%로 3.0%p 증가
 -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은 35.5%에서 32.4%로 감소
 - 다만 규모 측면에서 비정규직 일자리 수는 2006년 639만개에서 2015년 881만개로 242만개 증가

< 소득 및 근로안정성 분류별 일자리 비중 변화 추이 >

(단위: %, 만원)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증감
소득	적정 이상	32.7	35.1	38.5	38.6	40.2	34.3	34.8	37.0	36.4	39.9	7.2
	적정 미만	67.3	64.9	61.5	61.4	59.8	65.7	65.2	63.0	63.6	60.1	-7.2
중위소득		145	150	150	150	160	170	180	180	190	180	35
중위소득 125%		181	188	188	188	200	213	225	225	238	225	44
근로안정성	정규직	64.5	64.1	66.2	65.1	66.7	65.8	66.7	67.4	67.6	67.5	3.0
	비정규직	35.5	35.9	33.8	34.9	33.3	34.2	33.3	32.6	32.4	32.5	-3.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비중 증감은 2006년 대비 2015년.

③ (근로시간 측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과다근로 일자리는 감소하고 과소 시간 일자리는 증가

- 과다근로 일자리는 감소하고 과소시간 일자리는 증가
 - 과다시간 근로 일자리 비중은 2006년 33.7%에서 2015년 20.2%로 13.5%p 감소
 - 동기간 적정시간 근로 일자리 비중은 43.9%에서 45.9%로 2.0%p 증가
 - 한편 과소시간 근로 일자리 비중은 22.4%에서 33.9%로 11.5%p 증가
- 모든 유형별(좋은-괜찮은-힘든-안좋은)로 과다근로 일자리는 비중이 감소
 - 과다근로하는 좋은 일자리 비중은 2006년 7.5%에서 2015년 7.1%로 축소
 - 과다근로하는 안좋은 일자리 비중도 동기간 8.2%에서 3.7%로 축소
- 모든 유형별로 과소근로 일자리 비중이 증가
 - 과소근로하는 좋은 일자리 비중은 2006년 6.7%에서 2015년 11.0%로 증가
 - 과소근로하는 안좋은 일자리 비중도 동기간 10.3%에서 14.8%로 증가
- 한편 적정근로 일자리는 유형별 일자리에 따라 증감 변화가 다르게 나타남
 - 적정근로하는 좋은 일자리 비중은 2006년 12.7%에서 2015년 16.9%로 증가
 - 반면 적정근로하는 안좋은 일자리 비중은 동기간 11.3%에서 9.0%로 감소

< 근로시간별 일자리 비중 변화 추이 >

(단위: %, %p)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증감	
과다근로	33.7	30.1	29.1	30.3	31.7	24.6	21.9	19.6	19.5	20.2	-13.5	
적정근로	43.9	43.2	43.2	51.5	51.5	44.4	42.1	40.2	38.7	45.9	2.0	
과소근로	22.4	26.7	27.8	18.1	16.8	31.0	36.1	40.1	41.8	33.9	11.5	
과다	좋은	7.5	7.1	7.7	9.8	11.4	6.6	5.9	5.6	5.6	7.1	-0.4
	안좋은	8.2	7.4	6.5	6.0	5.8	5.0	4.5	3.9	3.7	3.7	-4.5
적정	좋은	12.7	12.9	14.7	19.6	20.2	14.6	13.6	13.9	13.0	16.9	4.2
	안좋은	11.3	10.4	10.0	12.7	11.0	10.0	8.9	8.4	7.9	9.0	-2.3
과소	좋은	6.7	8.5	10.0	4.0	3.0	8.5	10.6	12.8	13.1	11.0	4.2
	안좋은	10.3	11.5	11.1	11.0	11.1	14.6	15.2	15.5	16.1	14.8	4.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1)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기준.

2) 비중 증감은 2006년 대비 2015년.

④ (성별)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세에 힘입어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남성, 여성 근로자 비중이 모두 확대되고 있으나 남-녀간 격차는 확대

- (남성)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안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감소
 - 적정소득 이상,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의 비중은 2006년 22.5%에서 2015년 27.7%로 5.2%p 확대
 - 적정소득 이하, 비정규직의 안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3.2%에서 11.2%로 2.0%p 감소
- (여성) 여성 근로자의 경우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증가한 가운데 안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의 비중은 2006년 4.5%에서 2015년 7.2%로 2.7%p 확대
 - 안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비중은 동기간 16.6%에서 16.3%로 큰 변화 없음
- (남-녀 격차) 한편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 비중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남-녀 근로자간 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 격차가 확대
 -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남성-여성 근로자 간 비중 격차는 2006년 18.0%p에서 2015년 20.5%p로 2.5%p 확대
 - 반면 안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 비중은 여성 근로자보다 빠르게 감소하면서 남-녀 근로자 간 안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 격차는 2006년 -3.4%p에서 2015년 -5.0%p로 확대

< 성별 일자리 비중 변화 추이 >

(단위: %, %p)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증감	
남성	좋은	22.5	23.5	26.5	27.1	27.9	24.4	24.6	26.1	25.6	27.7	5.2
	안좋은	13.2	13.2	12.2	12.4	11.6	12.5	11.8	11.5	11.5	11.2	-2.0
여성	좋은	4.5	5.0	5.9	6.2	6.8	5.2	5.5	6.2	6.2	7.2	2.7
	안좋은	16.6	16.1	15.5	17.3	16.2	17.1	16.7	16.3	16.3	16.3	-0.3
성별 격차	좋은	18.0	18.4	20.7	20.9	21.1	19.2	19.1	20.0	19.4	20.5	2.5
	안좋은	-3.4	-3.0	-3.3	-4.8	-4.7	-4.6	-4.9	-4.8	-4.8	-5.0	-1.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1)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기준.

2) 비중 증감은 2006년 대비 2015년.

3) 성별격차는 남성 근로자 비중에서 여성 근로자 비중을 뺀 것. (-)는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남성 근로자 비중보다 높음을 의미.

⑤ (연령별) 연령별로 좋은 일자리 및 안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30세 미만 청년층) 청년층 근로자의 경우 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안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비중은 감소
 - 30세 미만 청년층 근로자의 좋은 일자리 종사 비중은 2006년 3.0%에서 2015년 3.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안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은 7.6%에서 6.3%로 1.3%p 감소
 - 청년층의 안좋은 일자리 종사 비중이 축소된 데에는 일자리 질 개선 외에도 고학력화 및 청년 구직난 가중에 따라 청년층 임금근로자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30세 이상 55세 미만 중년층) 중년층 근로자의 경우 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안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은 감소
 - 30세 이상 55세 미만 중년층 근로자의 좋은 일자리 종사 비중은 2006년 22.6%에서 2015년 28.2%로 5.6%p 확대
 - 동기간 안좋은 일자리 종사 비중은 16.1%에서 11.7%로 4.4%p 감소
- (55세 이상 고령층) 고령층 근로자의 경우 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비중과 안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비중이 동반 상승
 - 고령층의 좋은 일자리 종사 비중은 2006년 1.3%에서 2015년 3.5%로 확대
 - 안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도 6.1%에서 9.5%로 3.4%p 확대
 - 고령층 일자리의 경우 특히 2013년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 추진과 더불어 빠르게 확대된 측면이 있음

< 소득분류별 일자리 비중 변화 추이(%)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증감
청년	좋은	3.0	3.3	4.0	3.8	3.8	2.6	2.5	2.5	2.3	3.3	0.3
	안좋은	7.6	7.4	6.7	6.8	6.4	6.6	6.4	6.2	6.3	6.3	-1.3
중년	좋은	22.6	23.6	26.6	27.6	28.6	24.9	25.1	27.1	26.5	28.2	5.6
	안좋은	16.1	15.5	14.7	15.2	13.9	15.0	14.0	13.0	12.4	11.7	-4.4
고령	좋은	1.3	1.6	1.8	2.0	2.2	2.1	2.4	2.6	2.9	3.5	2.2
	안좋은	6.1	6.4	6.3	7.7	7.6	8.0	8.2	8.6	9.0	9.5	3.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1)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기준.

2) 비중 증감은 2006년 대비 2015년.

3. 시사점

첫째, 일자리 확충 및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안정성이 낮은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취업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제고하는 일자리 확충 및 질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고용안정성이 낮은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교육 확대, 취업알선 강화 등을 통해 노동경쟁력 제고를 지원

둘째, 낭비적 근로 문화 개선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일할 기회 보장을 통한 소득안정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 근로 의욕 및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는 과다근로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근로 문화 가이드라인 제시
- 한편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비자발적 과소근로는 최소화하여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셋째,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개선 혜택의 수혜 정도가 낮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 여건 개선이 요구된다.

- 여성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및 처우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법규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
- 더불어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유연근무제 실효성 제고, 영아 보육 지원체계 강화 등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지원

넷째, 청년층 및 고령층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 고학력화와 구직 장기화로 인해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 하락하는 청년층의 조기 취업 지원 시스템 활성화
- 사회복지 시스템이 다소 미흡한 상황에서 고령 인구가 적정 근로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네트워크 강화, 고령층 취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고령층 고용 대책을 지속 추진 **HRI**

전해영 선임 연구원 (2072-6241, hjeon@hri.co.kr)